

메르스 공포...“다중이용시설 피해라” 불안한 시민들

광주 주민센터 수강 취소 문의 잇따르고 어린이집 기피 “자녀 예방접종 나중”...병원서 감염소식에 진료도 꺼려

최근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공포’가 엄습하면서 광주·전남 시·도민들의 불안감도 점차 커지고 있다.

바깥 출입을 자제한 채 병원·어린이집 등 인파가 몰리는 시설을 기피하는가 하면 동(洞) 주민센터·문화센터 등에서 진행 중인 각종 프로그램 수강을 취소하는 등 메르스 여파가 광주·전남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

메르스 감염환자가 점차 늘고 사망자가 나오면서 감염확산을 제대로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응체제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터져 나오고 있다.

◇다중이용시설 기피...수강 취소도 문의 잇따라=시·도민들의 다중이용시설 기피현상이 확산하고 있다.

2일 광주지역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동(洞) 주민센터 등에서 운영하는 요가·노래·기타 등 프로그램 수강 취소를 문의하는 주민들의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 걸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 A주민센터에서 운영 중인 요가 프로그램 수강생 수는 모두 40명. 이날 참가한 수강생 수는 15명에 불과했다는 게 A주민센터 측의 설명이다. B주민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 중인데, 이 주민센터는 어르신들의 참여 저조로 프로그램 임시 중단을 검토 중이다.

지역 어린이집도 하루 종일 문의 전화에 시달렸다.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맞벌이 부부들이 어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으려는 기피현상 때문. 맞벌이 부부 장모(여·36)씨는 이날 어

린 자녀를 친정에 맡긴 뒤 출근길에 올랐다. 일부 맞벌이 부부들은 어린 자녀를 맡길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기도 했다.

◇“예방접종 해야 되는데...”=국내 메르스 환자들이 병원에서 감염됐다는 소식이 나돌면서 병·의원 가기를 꺼려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제대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도, 혹시나 모를 감염 우려에 예방접종 시기를 늦추는 일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주부 박모(여·35)씨는 “자녀 예방접종을 맞으러 가야 하는데, 메르스에 전염될까 병원 가는 게 불안해 다음으로 연기했다”고 말했다. 북구에 사는 김모(여·38)씨는 “치과 치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야 하는데, 20개월 된 아이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걱정했다.

‘메르스 공포 증후군’에 의사들도 예외는 아니다. 광주지역 한 병원에 근무 중인 한 의사는 “솔직히 감염되는 게 두려워 의사들도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다. 나 하나만 걸리는 게 아니라 내 가족들에게도 전염될까 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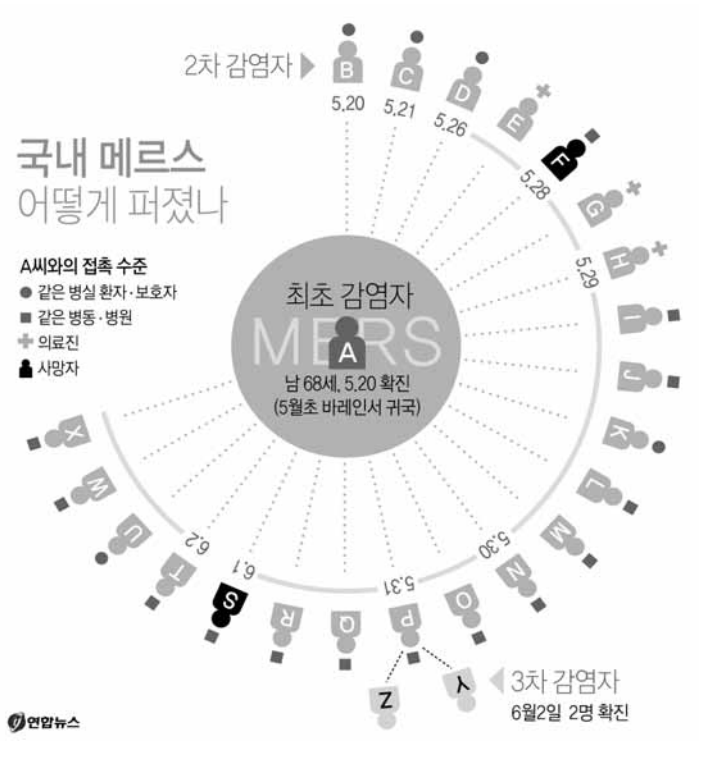
◇하계U대회 개최 걱정...보건당국 대응 비난=2015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다. 이날 현재 하계 U대회 참가예상국은 141개국 1만3000여 명이며 논란이 된 중동에서는 8개국 400여 명이 출전시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주부 이모(39)씨는 “중동에서도 온다던데, U대회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남부대 근처에 사는데, 수영장이 근처다보니 더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특히 U대회 기간에 광주 이외의 지역으로 거처를 임시로 옮기겠다는 주민들도 있다. 광주·전남 주부 모임 카페에선 U대회 개최와 관련, 우리의 목소리와 함께 보건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주시 광산구에 산다고 밝힌 한 네티즌은 “조기대응 실패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정부에 무엇을 더 바라겠느냐. 이 나라 국민 인게 화가 난다. (보건당국) 거짓말과 무능함에 치가 떨린다”고 비난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3차 감염 '메르스' 일상에서 막으려면

- 1 사람이 많이 붐비는 장소는 되도록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 2 외출 후를 포함해 수시로 비누로 손을 씻는다.
- 3 손을 씻지 않은 상태로 눈·코·입 등 얼굴부위를 만지지 않는다.
- 4 기침을 할 때에는 화장지·수수건·옷소매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린다.
- 5 가벼운 질환은 되도록 동네의원을 이용한다.
- 6 기침·발열 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해 진료를 받는다.
- 7 중동지역 여행 후 증상 발현 시 여행사실을 의료진에게 밝힌다.
- 8 중동지역 여행 시 낙타·박쥐·열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피한다.

자료/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손 자주 씻고 기침할 땐 입·코 가려야

메르스 예방법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예방법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겁다.

전문가들은 메르스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키지 않는 한 건강한 사람이 걸린다면 감기처럼 지나갈 확률이 크다고 보고 있다. 중장년층 이상이면 만성질환자인 사람일 경우 메르스 고위험군으로 보는 것이다.

즉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사람들이 메르스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면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메르스의 잠복기는 짧게는 2일, 길게는 14일 정도.

감염된 환자는 주로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한 기침·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보인다. 설사·변비 등의 증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는 재채기·콧물·코막힘·인후통·기침·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발열 증상의 경우 성인에게는 거의 없거나 열이 나더라도 미열에 그치곤 한다. 또 메스꺼움과 근육통이 동반되기도 하며 폐렴이나 급성 신부전 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메르스 바이러스는 몸속으로 배출되면 24시간 후 사멸되기 때문에 손씻기를 통해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 감염을 피할 수 있다. 기침할 때는 화장지나 손수건,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게 좋고 사람이 많은 곳은 출입을 당분간 자제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초등학교 휴업 2일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남 메르스 첫 번째 환자와 접촉한 S(58·여)씨가 숨진 병원 소재지 초등학교 한 곳이 이날부터 오는 5일까지 휴업한다. 메르스 발생 후 전국 첫 휴업사례다. 학교 관계자들이 현관 앞에서 휴업 안내문을 설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 전자발찌 성범죄자 감시 ‘구멍’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성범죄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데도, 재범 방지를 위해 이들 이동 경로를 파악하고 관리할 모니터링 인원은 턱없이 부족해 불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광주보호관찰소는 2일 이동 경로를 파악해야 할 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지난 2008년 3명에서 이날 현재 74명으로 무려 24.7배나 증가했다고 밝혔다.

광주보호관찰소 관할지역인 광주·장성·곡성·영광·나주·화순 등 6개 지역에 성폭력사범 57명, 살인 및 강도 등 강력사

범 17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자발찌 피부착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전담 관리하는 전담보호관찰관 증원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들의 1차 모니터링을 돕는 ‘대선 위치 추적장치 관제센터’의 경우 서울·경기·인천·강원·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작용자(910명)를 감시하는데 직원 16명이 4명씩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1인당 227명을 감시해야 하는 셈이다.

광주보호관찰소 ‘전자감독 신속대응팀’도 9명(보호관찰관 6명·무술특재요원 3

광주 등 6개 시·군 작용자 급증
모니터링 직원은 턱없이 부족

명) 중 야간 근무 인력은 2명에 불과해 전자발찌 착용자들의 경로 이탈, 생활 패턴 분석, 귀가지도 등을 관리해야 하는데 버거운 실정이다.

전남 지역으로 출장이라도 가게 되면 사실상 야간 상주 모니터링 인원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게 보호관찰소 측 설명이다. 전자발찌 착용자 A씨가 지난 3월23일 새벽 거주하던 여인숙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을 때도 인원 부족 등으로 이틀만에 검거됐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이순신대교 과속 안돼”...시속 60km 구간단속

전남도는 이순신대교 양방향에 ‘구간 과속단속시스템’을 설치하고 오는 10월부터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내 최대 현수교인 이순신대교는 대형 화물차량의 과속으로 교량 내구수명 단축 및 대형 교통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전남도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남지방경찰청과 협의해 여수·묘도동 묘도대교 전방에서 광양시 금호동 길호 나들목 6.4km 구간의 상·하행선 양방향 시점과 종점에 단속카메라 9대를 8월까지 설치하고, 한 달 동안 시범운영을 거쳐 10월부터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북부지 상습 이탈 공익요원 구속

○~법원이 10여차례에 걸쳐 북부지를 이탈한 20대 공익요원을 범정부에서 구속하는 등 엄벌 의지를 피력.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영호준 판사는 광주지 한 병원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지난해 18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

○~재판부는 지난 2012년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형(5년)을 선고받은 상황에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2014 타 경 2448, 근린시설, 대박물건, 강력추천!

-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산 2-5외 1필지
- 낙찰 후 12억 5000만원 대출 확정 (이자 연 2.1% 월 218만원)
- 요양시설/ 연수원/ 펜션단지/ 전원 주택단지/ 등등 개발 가능
- 대지 형질변경으로 공시지가 10억원 이상 상승 효과
- 관광진흥자금 5억~10억 보조 가능
- 추가 비용없이 명도 완료 가능
- 단독/공동투자 가능(법인으로 공동 소유)
- 수익률 1억투자 → 5000만원 가능(18개월 이내)

상담문의/(주)오천경매 H.010-3605-5000